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연관 글자글자](#) |
 [선생님닷컴](#) |
 [어디가 활용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엇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러스 A동 23층 TEL 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안내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¹⁾
수 시 모 집	원서접수	2021.09.10.(금) ~ 14.(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1.07.05.(월) ~ 09.(금)	2020.09.0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0.07.06.(월) ~ 10.(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1.09.15.(수) ~ 12.15.(수)(92일)	2020.09.12.(토) ~ 12.14.(월)(94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8월 중 전형실시 권장
	합격자 발표	2021.12.16.(목) 까지	2020.12.15.(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12.17.(금) ~ 20.(월)(4일)	2020.12.16.(수) ~ 18.(금)(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12.27.(월)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	2020.12.23.(수), 합격자 발표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12.28.(화)	2020.12.24.(목)
	원서접수	2021.12.30.(목) ~ 2022.01.03.(월) 중 3일 이상	2020.12.26.(토) ~ 30.(수) 중 3일 이상
정 시 모 집	가군	2022.01.06.(목) ~ 13.(목)(8일)	2021.01.02.(토) ~ 10.(일)(9일)
	전형기간 나군	2022.01.14.(금) ~ 21.(금)(8일)	2021.01.11.(월) ~ 19.(화)(9일)
	다군	2022.01.22.(토) ~ 29.(토)(8일)	2021.01.20.(수) ~ 28.(목)(9일)
	합격자 발표	2022.02.08.(화) 까지	2021.02.01.(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2.02.09.(수) ~ 11.(금)(3일)	2021.02.02.(화) ~ 04.(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2.02.20.(일)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1.02.16.(화), 합격자 발표는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는 개별통보만 가능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2.02.21.(월)	2021.02.17.(수)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등록	2022.02.22.(화) ~ 28.(월) ※ 합격통보마감: 2022.02.27.(일)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1.02.19.(목) ~ 25.(목) 21:00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는 개별통보만 가능
	등록 기간	2022.02.28.(월)	2021.02.26.(금)
	수능시행일	2021.11.18.(목)	2020.11.19.(목)
	수능성적 통지일	2021.12.08.(수)	2020.12.09.(수)
	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2021.08.31.(화)	2020.08.31.(월)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2021.11.30.(화)	2020.11.30.(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020.11.19.(목)에서 12.03.(목)으로 연기됨에 따라 수시모집 등 대입 일정이 2주가량 연기됨. 예외적인 상황으로 전형일정 비교를 위해 최초 발표된 일정표를 제시함.

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9월 10일(금)~14일(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21년 9월 15일(수)~12월 15일(수)까지 92일간이다.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21년 7월 5일(월)~ 9일(금)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한다.

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목)~2022년 1월 3일(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총 전형기간은 2022년 1월 6일(목)부터 1월 29일(토)까지 24일간이다.

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2022년 2월 8일(화)까지이고, 정시 미등록충원 마감일인 2월 20일(일)에 정시모집이 종료된다.

마.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2월 22일(화)~28일(월)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22년 2월 28일(월) 등록까지 진행되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종료된다.

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kcu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화)	1(수)	10(금)~14(화)	12(화)	18(목)	30(화)	10(금)	15(수)	16(목)	17(금)~20(월)	27(월)	28(화)
수시 학생부 기준일	9월 평가원 모의 평가 예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예정	수능 시험	정시 학생부 기준일	수능 성적 통지	전형 기간 종료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수시 등록 기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1:00)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11월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30(화)	30(목) ~1.3(월)	6(목)~ 13(목)	14(금) ~21(금)	22(토) ~29(토)	8(화)	9(수) ~11(금)	20(일)	21(월)	22(화) ~28(월)	27(일)	28(월)
정시 학생부 기준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가군	나군	다군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	정시 등록 기간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1:00)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추가 모집 원서 접수 및 전형일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 마감 (21:00)	추가 모집 등록 마감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특징

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 선발 비율 소폭 증가

(1) 전체 모집인원은 346,553명으로 2021학년도 347,447명보다 894명 감소되었다.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인원	346,553명	347,447명	347,866명	348,834명

(2) 정시모집에서 전년대비 1.3%p 증가한 24.3% 선발한다.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75.7%인 262,378명을 선발한다.
-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6,553명)의 24.3%인 84,175명을 선발한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명(75.7%)	84,175명(24.3%)	346,553명
2021학년도	267,374명(77.0%)	80,073명(23.0%)	347,447명
2020학년도	268,776명(77.3%)	79,090명(22.7%)	347,866명
2019학년도	265,862명(76.2%)	82,972명(23.8%)	348,834명
2018학년도	259,673명(73.7%)	92,652명(26.3%)	352,325명

나.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 비율 소폭 감소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 비율이 전년도보다 1.3%p 감소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6.0%인 228,557명을 선발한다.

(2020학년도 67.1% → 2021학년도 67.3% → 2022학년도 66.0%)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8,506명(42.9%)	146,924명(42.3%)	147,345명(42.4%)
	학생부종합	79,503명(22.9%)	86,083명(24.8%)	85,168명(24.5%)
정시	학생부교과	201명(0.1%)	270명(0.1%)	281명(0.1%)
	학생부종합	347명(0.1%)	424명(0.1%)	436명(0.1%)
합계		228,557명(66.0%)	233,701명(67.3%)	233,230명(67.1%)

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선발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 수시모집인원 262,378명 중 228,009명(86.9%)을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모집시기	2022학년도(A)		2021학년도(B)		증감현황(C) (C)=(A)-(B)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모집	262,378	75.7	267,374	77.0	▼ 4,996
정시모집	84,175	24.3	80,073	23.0	4,102
합계	346,553	100.0	347,447	100.0	▼ 894

라. 대학별 논술위주전형 3개 대학 신설, 모집인원은 감소

(1) 논술위주전형은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 등 3개 대학에서 신설하였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93명 감소되었다. 모집 시기는 모두 수시모집이다.

· 대학별 평균인원: 2019학년도 403.3명 → 2020학년도 368.1명 → 2021학년도 338.2명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36개교	11,069명	33개교	11,162명	33개교	12,146명
합계	36개교	11,069명	33개교	11,162명	33개교	12,146명

(2) 논술위주전형 실시 대학

· 논술위주전형 실시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 논술위주전형 신설 대학: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

마.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증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5,940명 증가하였다.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정원내	29,103명(8.4%)	23,344명(6.7%)	22,442명(6.5%)
정원외	24,443명(7.1%)	24,262명(7.0%)	23,885명(6.9%)
합계	53,546명(15.5%)	47,606명(13.7%)	46,327명(13.3%)

· 고른기회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성인학습자, 지역인재 등

바. 지역인재 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 지속증가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선발규모를 확대하였다.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2학년도	92개교	20,793명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명	4.8%
2020학년도	83개교	16,127명	4.6%
2019학년도	81개교	13,299명	3.8%
2018학년도	81개교	10,931명	3.1%

(단위: 명)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실기/실적	논술	합계
2022학년도	14,040	6,299	341	93	20	20,793
2021학년도	10,346	5,867	80	228	-	16,52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월 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23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21,034명으로 재학생은 295,116명,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은 125,918명이었다.

- 국어 영역 419,785명, 수학 가형 139,429명, 수학 나형 267,483명, 영어 영역 419,031명, 한국사 영역 421,034명, 사회탐구 영역 218,154명, 과학탐구 영역 187,987명, 직업탐구 영역 4,12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4,851명이었다.

-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51.8%,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44.7%이었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1.0%,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97.2%이었다. 나형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76.8%,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19.4%이었다.

-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51.8%,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이 44.8%이었다.

□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다.

-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가/나형)을,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명을 함께 표기하였다.

-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 영어,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하였다.

□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 국어 영역의 경우 131점으로 나타났다.

-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30점, 나형 131점으로 나타났다.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점 ~ 67점으로 나타났다.

-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2점 ~ 68점으로 나타났다.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5점 ~ 70점으로 나타났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5점 ~ 81점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안내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어 전국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 간 자율협의체입니다.
- 대교협은 고등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 대입전형 관리 및 지원,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대학기관 평가인증 등 대학 상호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입학기획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안내, 대학입학 관리 및 지원
 - 입학지원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 수시·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 대입공정성지원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지원사업 운영
 -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상담지원, 자료개발, 프로그램 지원) 구성·운영, 대입상담 운영 및 정보 제공,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대입상담포털 “어디가샘 (sam.adiga.kr)”을 기반으로 대입전형정보 안내(대입정보119, 수시·정시 분석자료집, 대입상담자료집, 대입정보매거진 등), 대입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진로진학상담(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전공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상담교사단 및 현직 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대입상담센터의 상담은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 경험이 풍부한 370여 명의 교사가 진로, 진학, 학습법 등 대입 전반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의 사유로 화상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전화상담 (☎1600-1615)

- 평일 09:00~22:00
- 무료상담으로 내담자의 전화요금은 별도 부과

• 온라인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대입상담 ➡ 온라인대입상담

The screenshot shows the Adiga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containing links for '전문정보', '대학/학과/전형', '성적분석', '대입상담', '대입정보센터', and '마이페이지'.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s a 'HOT 공지/이벤트' sec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grid of service tiles: '대입상담' (with a person icon), '전공상담' (with a folder icon), '자주하는질문' (with a question mark icon), and '전화상담' (with the number 1600-1615 and hours 0900-1900). To the right of these tiles is a '지난 주 상담 TOP5' section with a pie chart showing the distribution of counseling requests across different categories: '수시지원' (blue), '정시지원' (orange), '대학정보' (green), '전공상담' (red), and '대입정보' (purple).

• 신뢰도 높은 상담을 위하여 전화 및 온라인상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가운데 전수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의 오류사항은 발견 즉시, 전화상담은 피드백지원교사의 콜백(발신자 1600-1615)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상담은 상담을 작성한 교사가 직접 상담내용을 수정하고 내담자에게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Q. 대입상담센터는 방문상담이 가능한가요?

-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방문상담(대면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수시박람회와 정시박람회, 지역교육청 주관 박람회,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등에서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방문상담, 설명회 등의 사항은 지역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1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02-3111-362~3	http://www.jinhak.or.kr
2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051-860-6204	https://dream.pen.go.kr
3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053-231-0392	http://www.dge.go.kr/jinhak/main.do
4	인천	진로교육센터	032-420-8475	http://jinhak.ice.go.kr
5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062-380-4571	http://jinhak.gen.go.kr
6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042-616-8320	http://www.edurang.net/main.do?s=course
7	울산	진학정보센터	052-210-5480	http://jinhak.use.go.kr
8	세종	진로취업지원센터	044-320-2181	http://sjcc.sje.go.kr/main/index.action
9	경기	진로진학지원센터	031-8012-0991~2	http://jinhak.goedu.kr
10	강원	진로교육원	033-639-9810	http://jinro.gwe.go.kr
		강원진학지원센터	033-258-5424	http://jinhak.gwe.go.kr
11	충북	진로교육원	043-210-0200	http://jinro.cbe.go.kr
12	충남	진로교육센터	1588-0795	http://career.edus.or.kr
13	전북	진로진학센터	063-239-3745~6	http://jinro.jbe.go.kr
14	전남	진로진학지원센터	061-260-0325	http://www.jne.go.kr/index.jne
15	경북	진학지원센터	054-840-2206	http://www.gbe.kr/jinhak/main.do
16	경남	대입정보센터	055-210-5111~8	http://jinhak.gne.go.kr
17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064-710-0287	http://www.jje.go.kr/jinro/index.jje

〈전국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1.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02-3111-362~3 (<http://www.jinhak.or.kr>)
2.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051-860-6204 (<https://dream.pen.go.kr>)
3.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053-231-0392 (<http://www.dge.go.kr/jinhak/main.do>)
4. 인천 진로교육센터 032-420-8475 (<http://jinhak.ice.go.kr>)
5.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062-380-4571 (<http://jinhak.gen.go.kr>)
6.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042-616-8320 (<http://www.edurang.net/main.do?s=course>)
7. 울산 진학정보센터 052-210-5480 (<http://jinhak.use.go.kr>)
8. 세종 진로취업지원센터 044-320-2181 (<http://sjcc.sje.go.kr/main/index.action>)
9. 경기 진로진학지원센터 031-8012-0991~2 (<http://jinhak.goedu.kr>)
10. 강원
진로교육원 033-639-9810 (<http://jinro.gwe.go.kr>)
강원진학지원센터 033-258-5424 (<http://jinhak.gwe.go.kr>)
11. 충북 진로교육원 043-210-0200 (<http://jinro.cbe.go.kr>)
12. 충남 진로교육센터 1588-0795 (<http://career.edus.or.kr>)
13. 전북 진로진학센터 063-239-3745~6 (<https://www.jbe.go.kr/jinro/index.jbe>)
14. 전남 진로진학지원센터 061-260-0325 (<https://www.jne.go.kr/jinro/main.do?mi=301>)
15. 경북 진학지원센터 054-840-2206 (<http://www.gbe.kr/jinhak/main.do>)
16. 경남 대입정보센터 055-210-5111~8 (<http://jinhak.gne.go.kr>)
17.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064-710-0287 (<http://jinhak.jje.go.kr/>)

여러분의
대입 고민

이제

대학어디가TV
에서 해결하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대학어디가TV를 검색하세요!

 YouTube **대학어디가TV**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 소개

① 유튜브 <대학어디가TV> 제공 정보

1) 대학학과 정보: 대학 정보 및 학과전공 소개

- 2) 대입 소식: 최근 대입 정보 및 대입 관련 변경사항 안내
- 3) 대입 전략: 대입전형 정보 안내(대입상담센터 자료 안내)
- 4) 대입정보포털(ADIGA):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 활용법 안내
- 5) 대입 면접 준비 방법: 대학 면접 준비방법과 면접시 유의사항 안내
- 6) 자기소개서 쓰고 활용하는 방법: 올바른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주의할 점
- 7)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관련 자료 탑재
- 8)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안내: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영상 제작 방법 안내
- 9) 교육방송 eduTV 공감: 교육방송 eduTV의 테드식 강연 소개(대학 제작 참여)
- 10) 대교협 LIV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등 최근 대교협 행사 영상 제공
- 11) 온라인 대학 설명회: 대교협 운영 사업 설명회 자료, 매뉴얼 배포 등 대학 안내자료
- 12) 글로벌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행사 소식

② 대입정보포털(ADIGA) 세부 메뉴

- 1) 진로정보: 테마별 직업정보 / 직업심리검사
- 2) 대학/학과/전형: 대학정보 / 학과정보 / 전형정보
- 3) 성적분석: 학생부성적분석 / 수능성적분석 / 대학별성적분석
- 4) 대입상담: 온라인대입 / 전공상담 / 자주하는 질문 / 진로진학센터 안내
- 5) 대입 면접 준비 방법: 대학 면접 준비방법과 면접시 유의사항 안내
- 6) 대입정보센터: 대입제도안내 / 대입일정 / 대입전략자료실 / 대입소식 / 대학별 입시소식 / 대입박람회·설명회 / 대학별 행사안내
- 7) 마이페이지: 관심대학·전형·진로 / 일정관리 / 성적관리 / 상담내역 / 신청·접수 / 대입원서 지원정보 / 회원정보 / 자녀입학도우미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 활용 안내

- ① 관련 의견 수시 접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미디어TF팀(02.6919.3822 / kjk07233@kcue.or.kr)
- ② 대교협 공식 유튜브채널 <대학어디가TV> 바로가기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공학 분야는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항공우주, 항공기계, 항공운항 등의 원리 탐구와 그 응용 대상으로
항공기, 무인기, 우주추진 발사체, 인공위성, 유도무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기역학, 공력소음, 항공기구조역학,
항공우주추진, 비행역학 및 제어, 연소공학, 우주역학 등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김주현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초반에는 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을 해서 공부를 잠시 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학에 합격에서 합법적으로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갑자기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곤증이 가장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것저것 해보며 찾아낸 나만의 팁은 허리를 곳곳이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웬만한 잠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의 패턴을 수능 시간표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 시간표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잠을 이겨내는 요령을 터득하고 그 뒤로는 불필요한 잠은 이겨내며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고3 되는 겨울방학에 한두 달 논술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받은 피드백을 최대한 수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 수능 대비를 할 때 수리 문제 풀이를 좀 더 꼼꼼히 적어보는 연습을 하고 논술 시험 1~2주 전에 지원한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최저등급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논술은 잘 본 학생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장에 가면 같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온 애들이 모여서 자신이 잘 본 것 같다, 꽤 많이 푼 것 같다, 붙을 것 같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결과와 크게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 전에 한 대학교 논술을 보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잘 봤다고 한 친구보다 예비 앞번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봤다고 기록을 필요 없이 남은 학교가 있다면 차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는 면접을 준비하는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SNS에 대입 시절 독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이공계 면접 한정)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예에 투표한 학생들 위주로 어떤 책이 도움이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기공학과 면접 본 학생 A: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다수 읽었는데, 면접에서 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전공과 관련지어 한 활동이나 보고서와 책이 일치할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소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읽을 경우 태양열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네 요라고 하시며 태양 발전기 수명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답이 아니더라도 책에서 본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 학생이 읽은 책 목록: 파인만씨, 농담도 잘하시네/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에너지 위기 편]/전쟁의 물리학)

전자 정보공학부 학생 B: 면접 때 고3 때도 책을 읽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B는 고1 때는 전반적으로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고2 이후에는 과와 연관된 주제의 책이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B 학생이 읽은 책: 사피엔스/이기적 유전자/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신소재공학부/화학과 면접 본 학생 C: 두 면접에서 모두 인상 깊은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C 학생이 읽은 책: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대부분의 학생은 면접에서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항공대학교 학생 중 아니요를 선택한 비율이 높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1학년 때는 수학,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2, 3학년 때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어려운 내용의 책이 아니더라도 책이 어느 내용이고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보통 1학년 때는 기본적인 물리, 수학, 프로그래밍(파이썬, C언어), 기본교양(글쓰기, 진로)에 대해 배웁니다. 저의 경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심층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학부 1학년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는 전자기학 과목이나 회로이론 등에서 물리가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공통으로 전자공학, 디지털 논리회로(우리가 흔히 보는 단자에 대한 과목), 회로 이론(회로를 어떻게 꾸밀 수 있고, 계산하는가)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2학기에는 이것들을 직접 회로로 구성해보고, 더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이후에는 크게 5개의 심화전공 트랙(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마이크로파 및 집적회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항공전자 정보공학부이기 때문에 전자 및 항공 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개의 트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항공전자는 항공전자나 위성 연구에 관해 공부합니다. 마이크로파는 초고주파 대역의 회로나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집적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도체는 흔히 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이거나 반도체 회로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신시스템은 무선통신 시스템 및 미디어 융합 신호처리에 관한 것을 연구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구조, 디지털 회로나 시스템 전문가 및 융합 네트워크 연구개발에 힘씁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컴퓨터의 본체와 부품을 하드웨어,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랑 반도체 트랙은 하드웨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 2학년 2학기부터 자신이 들어왔을 때 잘 맞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꼭 한 트랙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분야를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수업을 들어보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으면 됩니다.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우리 과의 남녀 성비가 남자가 훨씬 많아서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선배배 할 것 없이 친밀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서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 배우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 정보공학부에 대한 처음 이미지는 어렵고 쉽게 접해볼 수 없는 분야여서 낯설었지만 여러 수업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고 흥미로운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항공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보잉 행사나 Airbus 행사를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수업 중에는 열기구 관련 수업도 있어 직접 열기구를 타볼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것에 굉장히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과 명칭이 생소한 항공전자 정보공학부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과에 비해 더 편협한 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항공전자 정보공학부에 추가로 항공 분야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과입니다. 그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전자정보 공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융합 전공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전자 정보공학부에서도 조종융합 전공을 할 수 있고, 드론 관련 전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전자정보에 대한 것 이외에 항공적인 면에서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담으로 항공대학교의 이름 특성상 스튜어디스학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항공대에는 스튜어디스 학과가 없습니다.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대학에 들어와서도 궁금한 것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무엇이 다른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과는 비슷하고 굳이 분류하자면 전기공학과 안에 전자공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하고 유용한 제품을 연구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전기과는 강전을 주로 다루고 전자과는 주로 약전을 다룹니다. 강전은 송전하고 발전하는데 집중한다면 약전은 전기를 하나의 신호로 취급하여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다룹니다. 그래서 전기공학과는 발전회사, 전기 관련 공기업에 많이 취업하지만, 전자과는 통신, 반도체, 전자기기 기업에 입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전자공학부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것은 비슷할뿐더러 취업할 때도 전자, 전기분야를 한 번에 뽑는 경우도 많아서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과 특성상 1인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선배들보다 자신이 전공한 것에 맞춰 취업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삼성, LG와 같이 전자 분야 및 IT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취업합니다. 아니면 항공 분야의 특성을 살려 항공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연구소나 방송 통신, 국토교통부와 같은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나에 따라 다른데 공기업의 경우 NCS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따입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자격증보다는 전공 심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를 내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를 준비하든지 영어 자격증과 한국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일찍 정해진다면 관련된 서포터즈나 기자단, 그 기업과 관련된 교육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분야는 애니메이션 영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애니메이션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애니메이션만의 특화된 영상 제작 기법으로 표현한다.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분야로의 전이가 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표현예술로서 평가 받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등이 있다.

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최은혜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배경을 따라 그리며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작가를 꿈꿨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학원에 다니며 입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입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주제에 맞게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상황표현과 또는 칸을 나누어 스토리의 흐름을 만드는 칸 만화로 나뉘게 됩니다. 칸 만화로 입시를 준비하며 같은 스토리를 그리더라도 카메라 구도와 연출로 전혀 다른 만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스토리텔링과 연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겨 만화애니메이션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정시전형에서는 실기 60에 수능점수 40의 비율입니다. 수능점수에도 높은 비율이 배정되어 있어 실기 준비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또 실기 부분에서는 시험 출제 예상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치기 몇 달 전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출제 문제는 3개의 주제가 미리 공지되고 3개의 주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지 모르니 전부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상 문제를 연습한 대로 시험을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입시를 하며 힘들었던 것은 스토리 구상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연성이 필요하기에 항상 기승전결로 스토리를 구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스토리 구상 능력과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인사동에 무료 전시회나 대림미술관 등 여러 분야 작가들의 전시회를 관람하며 이야기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입시를 준비하며 항상 스토리가 큰 벽이었습니다. 주제가 정하여 나와도 어느 정도는 새로운 이야기를 넣어야 하므로 창의력이 필요했는데 항상 연출과 이야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 이미 완성된 책의 스토리를 토대로 책을 깊게 읽어 만화를 제작해 보기도 하며 스토리에 대한 공포를 차차 줄여나갔습니다.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2~3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와 면접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과 면접은 대부분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작품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거나 즐기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컨셉을 잡아 처음과 끝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의미나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그린 그림의 의미나 스토리를 잘 기억하여 질문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논리적이며 개연성 있는 스토리나 자신만의 그림 분위기로 면접관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재학 당시 만화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주 동아리 활동은 만화축제에 가거나 서로 모델을 해주며 크로키 연습을 하고 축제 때는 직접 만든 굿즈를 판매하거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 경험은 교내 벽화 봉사활동을 1년 정도 꾸준히 하였고, 교외에서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동화를 읽어주며 동화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함께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문학이나 역사 과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과는 대부분이 스스로 스토리를 짜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향의 수업이 많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토리를 구상을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이미 다양한 내용의 스토리가 시중에 나와 있고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문학이나 역사에 대해 알아둔다면 작품에 지식을 적용해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전공교과목에는 애니메이션기초와 시나리오 연구, 3D 모델링, 만화 스토리텔링, 웹툰 연출 등이 있습니다. 입시 그림만 배워 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애니메이션기초를 통해 캐릭터의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다양한 애니메이션 원리와 규칙을 적용하여 캐릭터를 움직여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연구와 만화 스토리텔링으로 쓰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돈하고 기획서나 장면구성, 시나리오 등으로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3D 모델링을 통해 좀 더 사실적인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2D 애니메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입학하기 전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과제가 많은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학생이 되고 걱정 그대로 많은 과제로 인해 잠도 많이 못 자면서 작품을 만들지만 불필요하고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야 아닌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완성된 작품을 보면 만족감이 듭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일본 애니 등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속어로 오타쿠라고 합니다. 오타쿠가 많은 학과라는 오해가 있는데 진실입니다. 다만 그만큼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자기 작품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소리이기에 그림 스타일과 스토리를 발전시키기 좋은 학업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신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만화창작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에 대해서만 배우는 만화창작과와는 다르게 만화뿐만 아닌 애니메이션, 영상 분야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림 분야에 대해서만 진로를 생각하고 정확한 분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 진학해 여러 분야를 배우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특징이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로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생각하며 학과에 오게 되었는데 한 직업에 대해 심하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전문적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것 같아 자신이 가진 무궁무진한 능력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나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작품을 많이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유의사항 Q&A

한태명 교사(오산고등학교)



Q. 등록확인 '예치금'이란 무엇인가요?

- 예치금이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격 후 신입생 등록금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일부를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하고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Q.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하면 안되나요?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금지)
-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사이버대학전공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이중등록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학 자체 학칙'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확인하거나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이미 예치금을 납부하였는데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등록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포기 방법이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Q. 예치금을 납부한 대학에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을 했으나 환불이 늦어질 경우 충원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되나요?

-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신청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재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되나요?

- 대학 재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해서 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중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중등록 금지는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학 연도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중 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자퇴원을 제출하는 등 해당 절차를 기존 대학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입학 후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에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30일 까지	등록금의 5/6
30일 이후~60일 까지	등록금의 2/3
60일 이후~90일 까지	등록금의 1/2
9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저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 무의미하게 생기부의 장수를 늘리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생기부 내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질'이라는 요소가 너무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마다, 선생님마다 제 생기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활동에 대해 자신이 있고, 이 문구가 나의 질적 역량을 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생각될지는 스스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마다, 입학사정관님마다 각각 마음에 들어하는, 질이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것인데,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 국어 세특은 질이 높아!'라며 자신감 있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선택했던 전략은 '양 속에 자연스럽게 질이 피어나도록 해보자!'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내용을 생기부에 담고 그 누가 내 생기부를 보더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도록 말입니다. 농담 식으로 말해보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활동이 있겠지!!!'라며 부딪혀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양을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양과 유의미한 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구대암각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반구대암각화가 '무엇인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현재의 훼손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하는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의미한 양이 될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하나의 소재가 무의미한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소재를 끌어와 엮었습니다. 가령 저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해 영어 시간에 발표하게 되었을 때, 이를 가상현실기술과 접목해 발표했었습니다. 침수로 지워져 가는 암각화를 감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상현실로 반구대암각화를 구현할 것을 제시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같은 소재더라도 생기부 내에서는 유의미한 양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팁

저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특이하게 내신을 준비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 공부 특징이나 아직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한 번 제 내신 준비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다면 본인의 공부법으로 채택하고!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집중력이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책을 피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손이 갔고, 어느 순간 책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저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내신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스로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짧고 굵게 갈 수 없다면 얇고 길게 가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험기간의 길고 짧은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약 한달 반 정도를 시험기간으로 잡고 내신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험기간을 잡으니 짧게 시험기간을 잡았을 때보다 하루하루 조금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내신 준비의 부담이 줄었고, 집중력이 부족한 나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좀 더 고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제집이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가능했던 친구들과 다르게, 쉽게 암기를 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저는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무엇이든지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내용을 무식하게 적으며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쓰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서,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요약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교 1등의 요약집! 시험기간에 꼭 한 번쯤 봐보고 싶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요약집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집을 직접 만들며 책의 내용을 여러 번 보고, 생각하고, 스스로 적으면서 집중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약집이나 필기 또는 필사는 공부에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아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에 펜 하나 정도를 다 써가며 제 내신 공부는 적는 것의 반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험이 원래의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때까지, 즉 그러니깐 시험 전 주까지 모든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남은 시험범위 또는 복습만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공부하고 컨디션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조금 공부에 소홀할 때 공부에 매진했고, 다들 바쁘고 급하게 밤을 새가며 공부할 때 저는 오히려 조금 쉬어가면서 시험 당일을 위해 컨디션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시험 때에는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수시 준비 성공사례



수상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림문자 만들기 대회, 생활 속 수학 발견대회, 토론 한마당, NIE대회 2회, 과학 UCC대회, 수학 구조물 작품 만들기 대회, 현대 시 기반 공익광고 기획 대회, 문화유산 홍보 포스터 그리기 대회, 독도 포스터 그리기 대회, 영시 쓰기 대회, 과학 토론 대회, 철학 에세이 2회, 동아리보고서대회 6회, 학종 관련 수상(자기소개서 등) 2회, 교내인재상 2회, 인성 관련 수상(봉사상 등) 3회, 교과우수상 등 전체 45개의 수상이 있습니다.



동아리

저는 3년 동안 시사토론동아리를 했습니다. 주로 동아리 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잡고 1년 동안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엮는 방향으로 생기부를 채웠습니다. 시사토론동아리에서 시사에 대해 공부해보는 과정에 토론 뿐 아니라 답사,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여성과 관련된 담론에 대해 '미투운동과 역사별'을 주제로 토의해보고, 교내 생리대 형광물질 검출 실험을 진행해보고, '학생 참소리 축제'에 답사로 참여해보며 시사들 다각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는 역사 자율동아리 기장으로 답사활동을 주도하고, '만들며 공부하는 한국사'를 슬로건 삼아 태극기를 만들어 보는 현충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문화유산 미니어처를 동아리원들과 만들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회 자율동아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의제로 교내 캠페인을 하고 학교의 교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학문학 자율동아리, 영어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우리가 보통 봉사라 함은 요양원, 보육원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나의 어떤 학문적, 사회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봉사에 주력했던 편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박물관 내에 유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피드백,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국의 박물관을 하나씩 방문해보며 각각의 박물관이 어떤 컨셉과 전략으로 관람객을 유치시키고 있는지 비교하고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방법에 대해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볼지' 보고서를 쓰는(정확히는 마을버스와 쓰레기통을 지역사적으로 디자인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양원 봉사, 교내 멘토링 활동 등 1학년 110시간, 2학년 148시간, 3학년 55시간, 총 3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세특

1번에서 언급한 유의미한 양을 위해 새로운 소재를 재구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법과 작문 세특 일부입니다. 고고학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에서 단순히 고고학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특정한 예시를 깊숙이 분석해 설명했습니다.

인문학적 단서를 통한 고고학적 추론을 주제로 최초의 인류 루시의 사망원인에 대해 추리 형식의 발표를 진행함. "우리 모두 고고학자가 되어 탐구해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발표를 구상하여 친구들이 제시되는 자료에 집중하고 발표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함. 고고학도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깊이를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여 인문사회의 입체적이 사고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화통과 통계 세특 일부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속에서의 인문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평균의 종말'을 읽고 평균이 우리 삶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 교육론의 입장에서 IQ, 행동특성 심리학 등 천편일률적인 평균값이 신봉되고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오류가 담긴 교육의 한계점을 분석함. 평균을 맹신하는 사회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수학적 시각이 남다른 학생임.

미술문화 세특 일부입니다. 문학과 미술이라는 예술을 유기적으로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시(時)라는 단어를 전통문자도로 표현하며,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표지 패턴을 활용함. 윤동주의 시상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럽고 얇은 먹선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미술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저생전에 대해'가 전 속 데페이즈망, 사물을 보는 낯선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로 데페이즈망을 설명하고, '저생전'의 중심구절을 데페이즈망을 적용하여 분석함. 사물을 의인화함으로써 낯섬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데페이즈망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문학과 미술 모두 관찰을 통해 특정한 상징형식을 발현한다는 점에 문학과 미술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함.

자기소개서 1번에서는 '가야의 역사적 성격과 사국시대 개념 도입'이라는 주제의 소논문은 쓰며 가야의 전성기 최대영토와 세력을 가야의 문화재를 통해 추측해본 학습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에 토기나 무덤 같은 유물과 유적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소论문을 작성하면서 능동적인 사학도의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경험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소서

2번 첫 문단에서는 석굴암에서 원주율을 이용해 본존불의 웅장함을 극대화 시켰다는 점과 씨름도에서 마방진의 원리가 그림을 안정감 있게 묘사될 수 있게 도왔다는 점에서 학문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을 배울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AI와 인간의 차이를 기계문명이 지배하는 미래사회를 다룬 영화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 역사동아리 답사에서 방문한 청자박물관의 청자 오브제 아키텍처를 감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달리 인간은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창조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후대에 전달한다는 '중동분'을 발견했고, 인간의 역사적 유물을 연구하는 제 진로에 대해 인간의 본질을 확인해 간다는 의미를 찾는 경험이 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3번에서는 모의 UN대회에서 UAE대사를 맡으며 이슬람 문화를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험에서 무관심했던 국가의 문화를 '공감'으로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유대를 형성하는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회 온라인 익명 상담방 상담원을 하며 친구들의 고민에 나의 해결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했던 것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번에는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MAN VS MACHINE)'이란 책에서 AI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맞으며 AI를 적이나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AI에게도 공감의 자세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읽고는 욕망이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인공의 모습에 나 자신의 질투나 열등감을 직시할 수 있었고, 부끄럽게 느껴 숨기려만 했던 감정들이 오히려 나의 강한 열의의 반증으로 다가와 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성찰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에서는 전통문화를 그대로만 계승할 것이 아니라 현대화 작업을 거쳐 새로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해야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역사 속에서 콘텐츠를 재발굴 하고자 하는 제 진로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적었습니다.

4 수능 공부 노하우



국어

화작문은 nn분만에 끝내야 한다(이 수기를 읽는 어떤 학생에게는 이 정해진 시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nn분이라고 적습니다.)는 국어 풀이 공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유로워진 시간 분배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비문학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작에서 톤금없이 미끄러져 실수를 할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고3 초반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화작문을 풀 때마다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작문을 nn분 안에 풀려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작문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넉넉히 풀었습니다. 대신 그렇게 부족해진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문학과 비문학 공부에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 점점 어려워지는 비문학 난이도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실력이 쌓아지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학입니다. 저는 사실 비문학보다 문학을 더 어려워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비문학은 그래도 그 지문 속에 답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틀리더라도 틀린 이유가 명확하게 보였기에 오답하기도 복습하기도 꽤나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학 공부를 할 때 저를 가장 방해한 생각은 '문학은 모든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데, 또 문학은 개개인의 해석이 각각의 답이 될 텐데 어떻게 수능의 문학은 하나의 답을 일관적으로 강요하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만 이런 반향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수용자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의 문학은 비문학과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상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문학과 같이 '독해'와 '분석'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학 본문 자체에만 근거하여 '비문학처럼'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수능의 문학과 비문학을 푸는 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의 정답은 제시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학

제일 무서워했고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수학 공부를 하기 싫었고 문제집을 풀며 문제를 틀릴 때마다 더욱 반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스스로의 성취동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성취동기는 얇은 문제집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책 하나를 모두 끝냈다는 성취동기는 저에게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권을 모두 마무리해버리고 깔끔하게 치워버릴 때의 쾌감, 그리고 내가 이 책 하나의 모든 내용을 꿰고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한 권 끝낼 때마다 자유 시간을 갖거나 참

아왔던 게임을 한다든지 외부적인 성취요소를 더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리한 분이라면 느꼈겠지만 얇은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 '모든 내용을 켈 정도까지'입니다. 얇은 책이니 이러한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두꺼운 책에서 모든 부분을 훑기란 꽤 오래 걸릴 작업일 것 같아, 얇은 문제집을 골라 모든 문제를 살살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면 더더욱 좋죠! 쉬운 문제더라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집이더라도 이런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석과 접근 방법은 기본에 근거하니깐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자 몇 시간 동안 단어장만 붙들고 있는 친구들을 본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영어 단어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독해 문제집, 수능특강, 수능완성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복습을 하겠죠? 복습을 하면서 주로 우리는 문장 분석과 내용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를 더 합니다! 바로 단어암기입니다. 이렇게 독해와 단어를 한꺼번에 공부했습니다. 독해를 하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뜻을 적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단어장이나 노트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 복습하며 문제를 볼 때마다 단어도 계속 읽어보고 해석해보면서, 굳이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단어는 그 특유의 한국어 해석으로 전치될 수 없는 고유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겉으로, 한국어로 해석하기에는 같게 보일지라도 은연중에 긍정적인/부정적인, 직접적인/간접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 작업은 단어가 단어로만 독립되어있을 때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느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단어암기에 따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에 그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단어는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뜻이 한 단어에 담겨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중심적 의미와 그것에서 파생한 주변적 의미가 결국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A단어는 A라는 뜻이야.'라고 외워버리는 데에서 멈춰서 A단어를 A뜻으로만 고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에서도 A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니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사실 그 문장에서는 A*으로 쓰였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단어의 모든 뜻을 우리가 외울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 속에서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의 뜻을 외운 다기 보단 '이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느낌으로 쓰였지~'를 외우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로 다른 문장에서 다른 뜻으로 그 단어가 쓰여도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탐구

저는 제일 수월하게 공부하고 가장 재미를 느꼈던 과목이 사회탐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지라 자신감에 오혀려 고3때 탐구과목 공부에 소홀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나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지만 탐구에서만 실수를 꽤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 경험은 사회탐구뿐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자만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자신감은 공부를 하는 데에 원동력을 주지만, 이것이 자만으로 이어져 노력이 끊긴다면 결국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에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을 맞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실력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놓친 개념은 없는지 공부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응시했습니다.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모두 유명한 1타 인강 강사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인강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EBS 인강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사실 인강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인강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실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교과서적 내용에 혼란을 가할 정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던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혼자 사회탐구의 문제 유형이나 공부 방법을 분석하기 어렵다면 사실 인강이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강을 시도해보았을 때 저처럼 사실 인강의 공부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EBS와 연계교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 끝까지 대학입시라는 마라톤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였던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저는 내신관리를 3주 전부터 하려고 항상 마음은 먹었지만 내신기간 2주 혹은 2주 반 전쯤에 전국 혹은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 모의고사 날까지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신 공부를 따로 해 두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줄지 않고 집중해서 그날의 내용을 완전히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날의 수업을 이해했다면, 수업을 충실히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졸거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서 대답을 성실히 하면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친구가 대답이 영 시원찮으면, 선생님께서도 아 이 부분이 어렵구나, 하고 더 상세히 설명해주시니 과외받는 것처럼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 전날에 EBS강의를 잘 활용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검색하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신 중간, 기말 예상 문제들이 있는데, 퀄리티도 좋고 헛갈렸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사교육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3 수능준비

사실 수시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기로 다짐했기에 완전히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만큼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저등급을 맞추고, 수시전형에서 탈락할 것에 대비해, 또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에 치중했습니다. 전 수능 공부에 대해 질문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이게 무슨 공부 법이냐고 의아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4등급을 맞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계속 풀고 그랬지만, 1학년 때까지 킬러 문항들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닥치는 대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2학년 중반쯤 되니까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막막하다면 일단 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축적되면서 그 문제 데이터들이 나에게 유형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문제 이해도 못했던 제가 1등급을 계속 받으며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여름 평가원 기조가 변했고, 저는 거기에 또 흔들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마음이 조금해 확률과 통계 기본 개념이 헛갈려서 인강 한 세트를 하룻밤을 새 다 듣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능날 아침에는 수능특강 기본 문제도 안 풀릴 정도로 초조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였기에 수능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학 백분위 99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느낀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 몸에 쌓인 데이터들이 배신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수능도 벼락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벼락치기는 아까 말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험을 잘 보고 싶고,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정치에서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3등급, 어쩔 때는 4등급.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을 때, 평가원 기출문제를 한가득 뽑아놓고 몇 시간 동안 법과 정치 모의고사만 풀고, 해설 듣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점점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진작 안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하지는 못했어도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때 친 법과 정치 과목에서 며칠 전 기출문제에서 봤던 보기가 나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법과 정치를 좋은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고 온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비교과활동



동아리

저는 3년 내내 교내 독서토론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1학년 때는 문, 이과를 정하지 않았기에 일부러 독서토론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며 식견을 넓히려려고 하였고, 2학년 때 문과로 학업 방향을 정하면서 독서토론동아리를 계속했고, 자기소개서에 토론능력을 강조하는 데 좋은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니 생기부 독서 칸에도 책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진로나 시사와 관련해 동아리 장을 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기 주도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활동

독서활동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관심 있는 한 부분을 쏙아 그 부분과 관련된 독서를 깊이 있게 하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 하나를 알게 되면 참고 문헌 등을 통해 또 다른 좋은 책들을 알게 되어서 책을 찾기도 쉽습니다. 또 문, 이과에 관계없이 독서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학문적 관심만으로 내가 이만큼 연구하고, 조사해보았다고 어필하는 것이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100권 정도를 읽었는데, 이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발췌독한 책들도 많이 있고, 책들 간의 연관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꼭 대학 입시를 위한 독서가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씩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와 끝까지 읽고, 힘든 수험생활시기에 위로를 받고, 앞으로의 내 모습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짬을 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저는 수험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도 않았었고, 어떤 대회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전에 했던 대회를 연결시켜 새로운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업능력과 관련된 경시대회는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상, 봉사활동수기경진대회, 통계활용대회, 토론대회, 소논문대회, 모의 콘테스트 등 정말 대회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장려상에 그친 대회도 많고, 딱히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



경시대회 참가

있던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이 후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소논문을 작성하는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진로희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원활동

1, 2학년 때는 반장으로, 3학년 때는 회계로 활동했습니다. 저에게는 임원활동이 크게 생기부 기록이나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원으로 활동하니 교무실에 드나들 일이 잦고, 담임 선생님과 특히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면서 도움이 될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30명이나 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은 임원이 아니면 해 볼 수 없는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1, 2 학년 때는 야자 시간을 이용해 격주로 학교 근처의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봉사를 했고, 3학년 때는 주말을 이용해 집 근처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왕 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진심을 다하며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하며 가진 생각들(예를 들면 아동복지와 관련된 행정적 차원의 접근)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나의 관점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5 어디가 활용 방법

대학정보와 학과 정보, 전형 정보를 맨 처음에 알아볼 때 어디가를 잘 활용했습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희망하는 대학들을 편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어디가를 통해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보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도움이 되니 지금부터 빨리 희망대학 홈페이지에서 전형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입박람회/설명회 메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설명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 설명회가 근처에서 열린다면 한번 찾아가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슬럼프 극복

시험 성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수시 성적 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았기에, 열심히 해도 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던 등급들을 보며 실망했고, 속상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한번 울고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시험과 성적이니 이제 와서 그것들을 바꿀 수는 없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슬럼프가 크게 한 번 왔었는데,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의 압박과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훌륭한 자기소개서들을 많이 보고, 나와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슬럼프를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기간 때까지 뭐가 되었든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 제출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친구들이 그 기간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털어놓지 못했지만, 부모님께나 친구들에게, 혹은 선생님께 한번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시기가 지나가야 해결되는 고민인 만큼, 고민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잘못된 화살을 나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게 내 마음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7 서류준비

생기부

생기부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내가 수업시간에 지닌 지적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가 학업활동을 하며 가졌던 의문사항이나 공부한 과정들을 선생님께서 인지할 수 있게 질문도 자주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면 선생님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칸에 내용을 기재해 주실 겁니다. 귀찮다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잘 챙겨서 나중에 입학사정관의 눈에 띄는 생기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 생기부에 있는 자율활동 칸은 나의 적극성을 보여주기 좋은 부분입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행사를 통해 내가 느끼고 연구한 과정들을 기재할 수도, 학급 임원 역할을 통해 내가 변화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통일안보교육과 같은 흔한 학교 행사가 시작이 되어 탐구를 진행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진로활동 칸에는 굳이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처럼 전형적인 진로활동을 넣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은 책이 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학교 경시대회 참가로 진로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 변화가 생겼는지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드러내주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소재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재들을 선정하고, 남이 내 자기소개서를 보고 느꼈으면 하는 강점들이 돋보일 수 있게 소재들을 엮어 스토리라인만 잡으면 살을 붙이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활동들을 전부 나열해보고, 이 하나하나의 소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추천서를 작성해주는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8 면접 준비

저는 수능 시험 이전에 면접을 1개, 수능 이후에 3개를 보았어요.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독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기재해 두기도 했고, 독서는 워낙 어떤 부분을 여쭙보실지 감이 안 잡히기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3학년 진로관련 > 3학년 진로 관련 외 > 2학년 진로관련 > 1학년 진로관련 > 2, 1학년 진로관련 외 순서로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정리할 때는 간단한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생기부나 자소서 내용이 책과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될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세대 면접 시에 제가 예상했던 책의 예상 질문이 그대로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각 과의 특성에 맞게 교수님께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시는지를 고려해 독서나 생기부, 자소서 관련 예상 질문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이 두 종류의 과를 지원하였는데, 정치외교학과의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이와 관련된 책을 더 착실히 준비했고, 자유전공학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법 관련 도서와 생기부 활동들을 더 숙지하고 갔

습니다. 또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에, 나의 직업적, 학업적, 인생에 걸친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변형 질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



면접만으로는 최하점수를 받던 친구가 면접 후 최고점수로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내신성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는 대충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직접 지원자의 얼굴을 보고 이를 확인하는 면접관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은 나와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들을 교수님께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면접을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수험시절 가장 싫어하던 말은 '힘든 거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미래의 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며 조금만 참아 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싫어하지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라는 말 옆에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라는 말이 붙으면 조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고, 사실 그 시간은 견디는 것 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이것 혼자 공공 알으려니 너무 힘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들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대에게 털어놓고, 괴롭지만 용원을 받으며 끝까지 대학입시라는 마라톤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떨던, 완주한 것만으로도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세요!